### **돔아리플러스+** 하하 수어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저녁 시간 평 생학습관 강의실에 '하하 수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여성 1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수어 통역을 맡은 '하 하 수어' 회원들이다. 이날은 사하구 공식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 '마음으로 보는 동화'를 녹화하는 날이다. 동화 녹화는 해설과 대사를 음성과 함께 수 어로 진행 한다.

름 지은 평생학습 동아리 '하하 수어' 는 수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 TV에서 뉴스나 교양프로그램에서 작은 화면으로 수어통역이 나오는 것 을 보고 수어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동경심 그리고 조금은 유별난 관심이 수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 으켰다. 2019년 11월 평생학습관에 서 수어 교실 기초반을 한 학기로 마 쳤으나 이것만으로는 배움에 대해 부 족함을 느꼈고, 배운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좀 더 능숙한 수어를 익혀보자는 생각에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막상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자 이듬해 초 코로나19가 몰려왔다. 그 러나 코로나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열성을 막을 수 없었다. 회원 친구의 학원 교실을 빌려 매주 모임을 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킴은 물론이다. 지 도해주는 강사가 따로 없지만, 회원들

# 손으로 말하는 따뜻한 이웃사랑

|배움의 열성이 모여 동아리 결성 유튜브에 동화영상도 올려

각자가 강사가 되어 서로 도와가며 연

올해 초 동아리 '하하 수어'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하구에서 매월 1 '마음으로 보는 동화'를 수어통역 과 접목한 동화구연 영상으로 제작하 여 유튜브에 올리게 된 것이다. 여기 언제나 하하 웃으며 활동하자고 이 에 참여한 '하하 수어'는 '제4화 무지 개 꽂이 피었어요'를 4월 중에 녹화 하였고 이날은 '제6화 숲속 마을 대 장 뽑기'의 녹화를 하였다. 이른바 수 어 통역사가 되어 미디어콘텐츠를 제 작한 것인데 작년 성과공유회에서 수 어 시연을 한 이후 두드러진 활동이었 다. 녹화 전 일찍 도착하여 시연 연습 을 하고 회원 한명 한명이 진지한 모 습으로 촬영을 하는 모습과 그 동작이 아름답게 다가왔다.

> 김경인(57세·괴정동) 회장은 "열심히 실력을 쌓아 놓으면 언젠가 활용할 기 회가 올 것으로 믿고 회원들과 끌어주 고 밀어주며 마음을 맞춰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이예린(40세·하단동) 총무는 "꾸준히 배우고 익혀서 나도 성장하고 가까운 이웃에 수어로서 도 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마 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동아리회원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무지개꽃이 피었어요' 영상에서 수어로 설명하는 장면

수어는 손의 모양이나 움직임과 방 향 그리고 표정 등을 사용하는 언어이 다. 즉 손으로 하는 말이다. 영상만드 는 과정을 통해 수어와 더욱 친근해지 고 실력도 향상된 '하하 수어' 동아리

회원들이 배우고 익힌 실력을 더 많은 수어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이루

alberto1@hanmail.net

### 동화 읽으며 위로 받아요

당리 작은도서관 '그림책 힐링학교' 어른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위한 그림책 힐링학교'를 운영하고 있

사하구 당리 작은도서관이 '어른을 다. 이 강좌는 성인 수강자들이 그림 책을 함께 읽고 감상하며 그림을 보면 서 마음을 위로받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부터 열렸으며, 10월까지 6개 월간 한 달에 2회 목요일 오전 10시부 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사하구 홈페이지의 통합예약서비스에 서할수있다.

6월에는 작은 배추와 연남천 풀다 발이라는 동화를 감상했다. 〈작은 배 추〉는 혼자 남은 작은 배추의 이야기 이다. 작은 배추가 자라서 꽃을 피우 고 나비들이 날아와서 이야기 하는 장 면은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교훈을 준다. 책을 읽은 후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데 수강자 들은 그 순간 아이가 보이고, 내가 보 이고, 남편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럴 땐 이랬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어른들도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는 느 낌이 든다고 했다. 〈연남천 풀다발〉은 작가 전소영이 서울 연남동에 살면서 매일같이 홍제천 산책을 하며 본 풀을 그린 동화책이다. 풀 그림들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책 표지도 코팅을 하지 않아 인상 깊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흐름을 알게 된다는 삶에 대한 글귀들 이 마음을 울린다.

안현정 강사는 그림책을 보고 좋은 내용은 필사를 하면 글씨도 예뻐지고 아이들 마음에 양식도 된다고 했다.

수강생들은 말린 꽃잎에 붓펜으로 예 쁜 글씨를 써서 책갈피를 만들었다. 집에서 아이와 같이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았다. 부모와 같이 한 것이 평생 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테니까.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책 속 으로 빨려들어 가는 것 같아 행복하다 고 한다. 전에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에 급급했는데, 책을 보면서 마음 의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도 이런 기분 이 들도록 책을 읽어 주고 싶은 마음 에 다음 수업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한 달에 두 번 강의하지만 알찬 프로 그램이니 힐링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 이 들었으면 한다.

문의: 사하구 평생교육과 051-220-4835

>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지 leekn61@hanmail.net

사하구평생교육신문

# 사하배움마당

S 전의 함께하는 사하구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입니다.

**발행**: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220-4801~6

**팩스:** 220-4809

**발행일:** 2021. 0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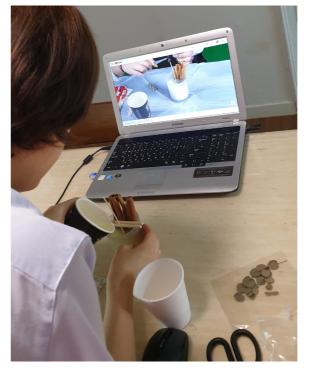


"밑반찬 나눠요"

제5기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지난 16일 신동경요리학원에서 '나만 아는 비법 밑반찬 만들기'를 주제로 닭 고기 단호박조림, 우엉 깨소스 무침 등을 만들었다. 수강생들은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나눔 반찬통에 담아 괴정4동 행정복 지센터로 바로 전달했다. 지역사회 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해 모인 수강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밑반찬은 나눔냉장고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한 끼 밥상에 올랐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 사하구 마음백신 프로그램 '호응'



'몸에는 코로나 백신을, 마음에는 힐링백신을 맞자! 사하구가 코로나 블루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치유 하고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만든 '소확행 마음백신 프로그램'이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해줄 다양하고 유익한 마음백 신 프로그램이 사하구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다. 영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편한 시간에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강의 영상을 보고 소감이나 우울감을 극복한 경험을 댓글로 남기면 매월 10명에게 추첨으 로 실습형 키트를 제공한다고 하니 댓글로 관심을 표

#### | 영화, 타로, 캔들만들기 등 소확행 영상 ┃ 매달 우울감 극복 댓글 남기기 이벤트

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마음백신 프로그램은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강의형 강좌와 넷째 주 수요일에 실습형 강좌를 올린다. 5월과 6월에는 '영화로 보는 긍정심 리학', '일상의 감정을 색으로 보는 색채심리학'강좌

첫 강좌로 소개된 '영화로 보는 긍정심리학'에서는 영화평론가 겸 영상심의위원인 안성희 강사가 비록 집에서 즐기는 방구석 영화이지만 보고나면 힐링이 되는 영화 네 편을 차례대로 소개해준다. 모두 소소 한 감동을 안겨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줄 따 뜻한 영화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보고 영상시 청 소감을 댓글로 남겼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영화시간의 힐링이 좋네요. 영화관에 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강 사가 소개해준 영화들을 하루 동안 돌려보면서 힐 링하고 싶네요', '학습관에서 안성희 선생님 영화수 업 듣고 싶습니다'등 다양한 댓글이 있었다. 댓글을 보면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이 마음백신 프로그램을 보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월에는 '어른이(어른아이)를 위한 힐링 그림책 테 라피', 8월에는 '타로가 알려주는 내 마음 속 이야기' 영상이 강의형 강좌로 올라갈 예정이다.

첫 실습형 강좌는 '시나몬 캔들만들기'이다. 벌레들 이 싫어하는 향이라 모기퇴치제로 많이 쓰이는 시나 몬 스틱을 이용한 캔들만들기를 보고 따라 만들 수 있 다. 여름을 대비해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다. 강주화 강사는 15분 가량의 영상만 보고도 충분히 혼자서 만 들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앞으로 소개될 실습형 강좌도 기대가 된다

코로나 백신을 활발하게 접종하고 있는 요즘 사하구 에서 준비한 '소확행 마음백신'으로 마음에도 코로나 블루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 〈소확행 마음백신 프로그램〉

게재일자	강의주제
6. 23.(수)	향기Talk, 바디 릴렉스 입욕제 만들기
7. 14.(수)	어른이를 위한 힐링그림책 테라피
7. 28.(수)	집사가 만드는 반려동물 네임텍
8. 11.(수)	타로가 알려주는 내 마음 속 이야기
8. 25.(수)	집에서 즐기는 썸머 와인파티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051-220-4805



# 짙어진 초록의 그늘아래, 아이들아 놀다가렴

# 사하차연학교 길을 따라

〈3〉아미산 숲빛깔길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사하구는 자연을 배움터 삼아 생태 고우니 해설사들이 상세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들려주는 사하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사하자연학교 코스를 직접 따라가 보며 체험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각 탐방코스의 매력을 소개하고 사하의 자연을 느껴보고자 한다.

6월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아직 덥지 않은 6월에 신록이 짙어지고 있는 아미산 숲빛깔길을 찾았다.

생태고우니와 함께 하는 사하자연학교는 아미산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식물을 관찰하고, 활동적인 자연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는 아미산을 방문한 원아들의 체험 활동에 동행했다.

다대롯데캐슬몰운대아파트 201동 뒤쪽 아미산 입구에 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노란색 운동복을 입은 아이들은 조금 큰 노란 병아리를 연상케 했다. 차례대로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을 하는 동안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끝이 없었다. 아이들 특성상 등산을 하는 것보다는 아미산 입구 근처에 있는 나무를 관찰하고, 게임과 간단한 체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태고우니 윤미영 씨는 원아들에게 자신을 부엉이라고 소개했다. 부엉이란 소리에 아이 들은 목청껏 웃으며 '부엉부엉' 소리를 냈다. 부엉 소리를 내는 노란 병아리들의 모습은 정 말 귀여웠다. 강사는 먼저 루페를 나누어 주 면서 그 사용법도 재미있게 설명했다.

두 줄 기차를 한 원아들은 10미터쯤 이동한 곳에서 무언가를 집어 올려 루페로 첫 관찰을 시작했다. 그것은 굴피나무의 열매였다. 굴피나무는 숲속 산책길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열매로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는 체험도 했다. 아이들이 서로 머리를 내미는 바람에 20명 원아들의 머리를 강사가 일일이 빗겨 주었다.

다시 이동한 곳은 바로 옆 산철쭉 나무였다. 강사는 나뭇잎의 특징을 하나씩 말해주면서

아미산이란 이름은 본래 이곳 마을을 '아미골'이라 부른 데

서 비롯되나 아미골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다. 산 모습이

마치 미인의 아름다운 눈썹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도

전해진다. 둥그스레한 산꼭대기에서 뻗어 내린 언덕이 산비

탈이 끝나는 아랫부분까지 완만하게 내려온다. 둘레길은 3

구간으로 나누어 있다. 임진왜란을 최초로 알린 응봉봉수대

는 1구간에 있다. 응봉봉수대는 몰운대와 낙동강 하구 일대

의 국경을 위협하는 왜군의 동향을 살피고 경계하던 곳이었

다. 아미산은 고도 234m로 사하구 감천동과 서구 아미동의

잠깐만!!

경계를 짓는다.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확인하게 했다. 아이들 은 관찰한 것을 앞다투어 말하면서 잇몸이 보 일 정도로 웃었다.

다음으로 사철나무를 관찰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르다고 해서 사철나무라고 설명했다. 무당벌레의 애벌레가 나뭇잎에 있는 것을 본 아이들은 이쁘다, 징그럽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산속에서 보는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견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도 만날 수 있었다. 꽃을 보지 못한 아쉬운 마음은 꽃이 피는 7~10월 사이에 한 번 더 찾아오는 것으로 달랬다. 조금 더 이동하자 망초꽃이 펴 있었다. 하얗고 이쁜 꽃 이름이 망초라는것이 의아했다. 그런 데 망초의 꽃말은 '화해'라고 하니 반전의 묘미가 있는 꽃이라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벚나무를 소개했는데, 그 잎과 줄기 사이에 아주 조그마한 혹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했다.

나무와 식물에 대한 관찰과 경험이 끝이 나고 아이들은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다. 각자 준비한 물통을 꺼내 목을 적시는 사이 강사는 다음 수업을 준비했다. 꿀 같은 휴식 시간이 가고 나뭇잎을 알아맞히는 게임과 나뭇잎 모양의 셀로판에 네임펜으로 자기만의 잎을 만드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아이들은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고, 정말 재미있다고 즐거워했다.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체험이 자연을 더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추억이 되길기대했다.

김미연 평생학습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어린이들이 루페(확대경)를 이용하여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



나만의 나뭇잎 만들기에 열중하는 모습



사철나무를 관찰하기 위해 빙 둘러선 아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 배움에 늦은 나이란 없다

# 대사하는 러니스EF

사하배움마당 제31호

우리 동네 워킹맘 오현정(44세·하단 동) 씨는 생활체육 전문강사이다. 오 현정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역아동 센터에서 음악줄넘기 봉사를 시작했 다. 그런데 봉사를 계속하다 보니 수 업내용에 한계를 느껴 2016년에 사하 구 평생학습관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녀가 처음 배운 과정은 전래놀이지 도사 자격과정이었다. 그녀는 뭔가 새 롭게 배우기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 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겼다. 오 강사는 전래놀이 지도사로서 어르신 수강생과 지역아 동센터 학생을 지도했다. 전래놀이수 업은 실내 좁은 공간에서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오 강사는 평소 관심 분야의 평생학 습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바로 수강신 청을 한다. 그래서 진로탐색지도사와 스포츠스태킹(컵 12개를 다양한 방식 으로 쌓고 내리면서 집중력과 순발력 을 기르는 스포츠게임)지도사 자격증 을 취득했다. 그녀는 스포츠스태킹 기

### 구혀정 씨

### │ 봉사하다 부족함 느껴 │ 평생학습으로 역량강화

법과 댄스를 접목해 평생학습관에서 컵타(컵을 가지고 비트, 컵타 주법, 동 작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퍼포먼스)수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또 사하구 평생학습홍보단 단장을 맡으며 플래시몹(flash mob) 공연을 위해 댄스지도 봉사를 했다. 홍보단은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으로 구성되어있어 지도하기 힘들었지만 구민과 함께 공연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순간이 되었다고 한다. 벡스코, 당리지하철 역사와 다대포에서 개최된 평생학습 행사에서 플래시몹 댄스 공연을 했다. 그리고 사하구, 영도구 등 5개구 합동 플래시몹 행사의 댄스도지도한다.

그녀의 배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져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평생학습관에서 언택트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이제는 그



2017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행사에서 플래시몹 "닐리리삐빠'공연을 펼쳤다



어린이들과 컵타 수업을 하는 모습

녀도 줌(zoom)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현정 강사는 평생학습과 인연 맺기를 정말 잘했다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맞게 누구나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다양한 기관의 체육 강사 뿐 아니라 부산시체조협회 이사로도 재임 중인 그녀의 왕성한 활동을 유위하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 봉사하면서 정착하고 싶어요

### 이주민 위한 헤어미용 강좌 신평1동 동네방네학습관

사하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이주민 여성이 안정된 생활로 정착을 할 수 있 도록 헤어 미용강좌를 열고 있다.

동네방네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열리

고 있는 '행복을 다듬는 다문화 미용 스쿨'에는 실기 위주의 파마, 여성 커 트, 남성 커트 수업이 주 1회 2시간씩 10회 강좌가 마련되었다. 강사와 수 강생은 모두 베트남 이주여성이며 20 대~30대로 6명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수강료와 미용기구는 무료이다. 지난 8일 오전 10시에는 단발 커트를 배우는 수업이 열리고 있었다. 강사 의 지시에 수강생들은 마네킹의 모발 을 4등분으로 나누어 집게핀으로 고 정을 하고 뒷머리부터 커트를 시작하 였다. 여러 번 연습을 하기 위해서 조 금씩 잘라내었다. 파마와 커트 연습을 하다가 마네킹 모발이 짧아지면 마지 막에 남성 커트 연습을 이어갔다. 남성 머리는 각도를 맞춰서 커트를 해야 해서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집에서 신문지로 연습을 많이 한다. 덕분에 가위질도 익 숙해졌다.

'행복을 다듬는 다문화 미용 스쿨'의 강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커트실습에 열중하고 있다.

사는 수강생들이 이해하고 습득하는 속 도가 매우 빨라 놀랄 때가 많다고 한다.

류수진(36세 · 다대동 · 베트남 이름 · 누엔티센) 강사는 중1, 초5 두 딸의 엄마이다. 처음에 배울 때는 왼손잡이라서 힘이 들었지만,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미용실을 운영 중이다. "이주여성을 위한 강의를 하며 큰 보람을느낀다. 앞으로 미용실을 확장해서 베트남 스타일로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아인(35세 · 다대동, 베트남 이름 · 류티번아인)수강생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느라 시간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요양원 어르신과 이주민 머리도 손질해주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29세·괴정동 · 베트남 이름 · 탗티히에우)수강생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베트남과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힘이들었지만 잘 배워서 강사님처럼 미용

실을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꿈꾸고 있는 헤어미용 국가자격증 취득에 성공해 서 우리 구에 정착 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필분 평생학습구민기자 shipbun@naver.com